

과거제의 위기와 삼교(유불선)의 돌파: 만명(晩明) 사대부 임조은(林兆恩)의 종교 재구성과 실천

유박순(중앙민족대학 철학과종교학학원)

초록

본 논문은 명말 사신(士紳) 임조은(林兆恩)이 삼일교(三一敎)를 창립한 역사적 배경과 종교 실천을 분석하여 그의 종교적 전향의 심층 동인을 밝힌다. 과거제도의 정체와 사신 계층의 생존 곤경이라는 이중 압력 하에서, 임조은은 가문의 심학(心學) 훈도와 지방 사회 실천을 바탕으로 전통적 과거 경로 의존을 돌파하고 유·불·도 삼교합일의 종교 체계를 구축했다. 본 논문은 원시 문헌 고증을 통해 삼일교가 지방 사인 사단에서 초지역적 민간 종교 조직으로 발전한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실천 선행-이론 후성'의 이중 경로를 밝힌다. 구제, 향왜, 지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삼일교는 점차 제도화된 확장을 실현했고, 사신 계층이 신분 위기와 권력 재편에 대응하는 대체 도구가 되었다. 연구 결과, 명말 사신의 종교 실천은 단순한 신앙 선택이 아니라 사회 자본과 사상 자원이 상호작용한 역사적 결과이며, 중국 전통 사회의 회복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주제어: 임조은, 삼일교, 명말 사신, 종교 실천

1. 서론

명대 중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과거제도의 정체와 사신 계층의 생존 곤경은 독특한 문화적 전향과 종교 실천을 낳았다. 이 시대의 축도(縮圖)로서 복건 보전(莆田)

출신 임조은(1517-1598)이 전통 사자(士子)에서 삼일교 교주로 신분이 변모한 것은 개인 운명의 돌파일 뿐만 아니라 사신이 제도 위기에 대응한 독특한 실천이었다. 임조은이 창립한 삼일교는 '삼교합일'을 이론적 핵심으로 하여, 구제, 전교, 지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전 지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형성했으며, 그 발전 궤적은 명대 사회의 신앙 재편과 권력 재분배를 심각하게 반영한다.

학계의 삼일교와 임조은 사상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하다. 철학과 종교학 차원에서 정지명(鄭志明)은 삼일교가 "생명의 궁극적 관심 위에 건립된" 종교적 특질을 강조했고, 당철가(唐哲嘉)는 『도덕경석략』 분석을 통해 임조은이 '인(仁)'을 해석의 핵심으로 삼아 유도 의리를 회통시킨 방식을 분석했으며, 한병방(韓秉芳), 하선몽(何善蒙) 등은 각각 삼일교의 이론 틀이 양명심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지적했다. 사회사 차원에서 나진휘(羅臻輝)는 삼일교의 장주(漳州) 전파와 지방 관신 상호작용에 주목했고, 임덕순(林德順)은 흥화(興化) 이민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전입된 후의 현지화 발전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삼일교의 교의 사상, 당대 발전, 또는 임조은의 개인 경력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종교 현상을 과거제도 정체와 사신 사회 전형의 이중 맥락에서 고찰한 경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 공백을 메우고자 임조은의 가족 배경, 과거 실패, 종교 실천을 분석하여 삼일교 창교 배후의 구조적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임자본행실록』 『임자연보』 『임자행실』 『임자삼교정종통론』 등 원시 문헌의 고증을 통해 삼일교가 지방성 학술 단체에서 초지역 종교 조직으로 변화한 경로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명대 중후기 사신이 어떻게 종교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사회 역할을 재형성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신'의 범위를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학계는 '사신'에 대해 이미 많은 논의를 했는데, 서무명(徐茂明)은 사신이 주로 "재야에 있으면서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향유하는 지식 집단으로, 과거 공명지사와 향리로 물러난 관원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맥더못(Joseph McDermott)은 문화사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신이 장서, 각서와 지식 유통 참여를 통해 문화 권위를 축적하고 전시하여 지방 사회의 지식 질서를 재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량이 방대한 미사(未仕) 생원들이 과거 사로가 막혀 '저급 공명'만을 갖게 되자, 저술, 간각, 경사 연구 등의 방식으로 문화 자본을 축적하거나 비명묘지, 응수문자, 서문과

응경지작을 써서 보수를 받는 방향으로 전향했다고 지적했다.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은 명청 사신의 지속적 합법성이 경제 자본이나 공명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상징적 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했으며, 종교 기부, 자선, 지방 사업 참여를 통해 명성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칭하는 '사신'은 주로 반드시 입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공명이나 가족 명망, 문화 자본과 종교/공익 참여를 통해 지방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식 집단을 지칭한다. 이 정의는 임조은의 "여러 차례 낙제했으나 여전히 지방 명망을 지닌" 처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왜 삼일교가 제도적 곤경에 처한 사신들을 끌어들여 종교 실천을 통해 공공 합법성과 사회 역할을 재구성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2. 사신 신분의 균열: 임조은의 사상 변천과 과거 위기

2.1 가족 세계와 심학 영향: 전통 사대부의 "내재적 전향"

삼일교의 창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창교자 임조은 본인의 사상 경력 문제와 같으며, 임조은의 사상 유변은 또한 개인의 사회생활 경력에 근원한다. 임조은 초년의 사회생활 신분은 전형적인 명대 지방 사인이었으며, 그의 유소년 시기 사상 계몽과 행위 배양은 가정과 과거라는 이중 요소의 구성에 불과했다.

임조은은 보전 "구목임씨(九牧林氏)"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전형적인 문화 관료 세가로서 그 선조의 관료 경력은 당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본무지번, 정영대발(本茂枝繁, 精英代發)"하여 당 이래로 구목임씨는 시종 과거 입사의 가정 전통을 전승했고, 명대에 이르러서는 진사 급제자가 백여 명, 거인이 5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승유상사(崇儒尚仕)의 가교 분위기는 임조은 개인 사상의 최초 지향을 유학 본위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무의식적으로 교육과 사회 진급의 경쟁을 연결시켜 현세 공명에 착안하게 했다. 그러나 임가는 임조은 일계에서 입조 임직 경력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개 지방 행정관원의 신분으로 임직했는데, 『임자본행실록』에 실린 임씨 세계에 따르면: "당 구목 단주자사 위공 후... 담주동지공 기(임홍)에 전해져 보전성적주향에 거하니, 교주 7세조이다... 진계령을 지내며 혜정이 있었고, 매헌처사 완을 낳았다. 매헌은 지암공 요를 낳았는데, 세공으로 청원사훈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조

은의 조부 임부도 양광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임직했다.

임가의 정치 활동 범위는 대부분 동남 지역에 있었고, 그 정치적 관심도 자연히 복건 등 동남 각성의 사회정치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임씨의 세계는 임조은 일대에 가까워지면서 약간 달라졌는데, 그 중 임조은의 조부와 부친 두 세대의 개인 경력이 임조은 본인에게 비교적 큰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임조은의 조부 임부는 홍치 15년 진사로 대리시 평사까지 올랐으나, 유근(劉瑾)과 틈이 있어 관직 부침을 겪었는데, 그의 조정 관료 경력은 명대 중기 억압적인 정치 풍조를 절실히 체험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상과 정치 환경의 타격을 깊이 받고 마음이 불만스러웠을 때, 임부는 같이 유근으로 인해 투옥된 왕양명을 알게 되었고, 후일 왕양명과 양광 지역에서 장기간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의 깊은 정치적 우의와 공동의 인생 경력이 임부 본인으로 하여금 양명심학의 많은 영향을 받게 했다. 조은이 그의 조부에게 교육받으며 자연스럽게 심학 이념에 점차 침윤되었다. 임부가 받아들인 심학 이념은 임씨 가문 전통의 사상 체계에 매우 큰 변혁을 가져왔는데, 이전 임씨의 세계도에서 사대부는 단지 전통 관료 체계 내의 일부분이었으나, 임부 이후로 임가의 세계도에서는 내재적 주체성이 외재적 권위성을 대체했고, 사대부 자신의 도덕 수양과 자아 각성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심학이 제창한 치양지(致良知)는 '위학-위사(爲學-爲仕)'의 고정된 행위 모식에도 일정한 돌파가 존재했고, 사회 책임을 담당하는 도덕적 사명은 더 이상 사로 운명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

임조은의 부친 임만인(林萬仞)은 적어도 그의 행위로 보아 이 새로운 사상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은음태학, 사양불사, 성오공을 지효로 섬기고 남의 급한 일을 돕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임조은의 부친이 과거 도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임조은이 후일 과거에 실패한 후의 사상 전변에 공간을 제공했고, "남의 급한 일을 돕기를 좋아한" 것도 임조은이 창교 전후 "선행을 베풀고 고향을 위해 선을 행한" 행위 선택에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 작용은 『실록』 가정 8년 조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13세의 임조은이 "매번 나갈 때마다 늘 소매에 백금을 넣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니, 13세의 임조은이 이처럼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빈민에게 선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친의 교육 시범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부친이 가정 23년에 병이 위중했을 때도 여전히 임조은에게 "훼가서난(毀家

紆難)"을 격려했는데, 『실록』에 "유명교주왈: '상유천금지권, 함부기인(遺命敎主曰: 尙有千金之券, 咸付其人)'"이라 기재되어 있어, 그 부친이 지방 명망을 그 가산보다 훨씬 중시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가 받아들인 관념이 도덕 실천을 중시하는 방향을 제공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가가 당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미 가산과 사관의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명망과 도덕의 측면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임조은이 후일 단지 선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거의 안정적인 진빈 습관을 형성하여 삼일교의 중요한 "위선향리(爲善鄉里)"의 도덕 지향을 구성한 것은 대체로 그의 동년의 가교 환경까지 추적할 수 있다.

총괄하면, 관료 세가의 가정 대환경은 임조은으로 하여금 관학에 대해 최초 인정의 태도를 취하게 했는데, 이 태도는 후에 과거 실패로 인해 관학에 대한 애매한 태도와 관방에 대한 이합적인 사상 관계로 전변했다. 그리고 그 조부가 받아들인 심학 이념과 그 부친의 행위 시범은 임조은이 과거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데 어떤 편리를 제공했고, 그가 삼일교를 창립하는 데 심학의 이론 틀과 "위선향리"의 도덕 지향을 제공했다.

2.2 과거 좌절과 제도적 위기: 복건 사자의 집단적 곤경

임조은 초년 경력에 직면한 두 번째 문제, 그의 인생 경력과 생명 체험 모순성의 근결은 바로 과거에 있다. 임조은의 과거 실패는 단순히 우연적 요소로 귀결될 수 없으며, 명대 중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과거 위기라는 배경 위에 건립된 것이다. 인구 팽창이 조성한 압력은 정치로 하여금 상응하는 인구를 수용할 새로운 공간을 발전시킬 수 없게 했고, 침울하고 황권이 부지런하지 못하며 조정에서 권력을 다투는 정치 환경은 지방 사인의 사로 운명에 충분한 관심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각급 시험의 합격 정원 증가는 정체되었고, 과거 유통 메커니즘은 날로 막혀, 임조은으로 대표되는 중하층 사자의 사회 출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 점차 협체되었다. 임조은이 있던 복건 보전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명대 복건성 응시 인원은 날로 증가했으나 정액 합격 수는 갈수록 부족했다. 향시 응시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정 25년 향시 입시자가 3000여 명에 달해 흥치 시 입시 인원의 두 배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명대 복건 향시 낙제율은 장기간 94%~97%의 높은 구간을 유지했다. 둘째 명대 복건 성 과거 거인군의 유동성과 불확정성이 비교적 강했고, 신흥 과거 가족이 전통 과거 우세를 가진 지방 사족에 경쟁 압력을 가했다. 셋째 흥화부의 과거 경쟁 분위기가 농후했다. 보전 지역은 "지수재송백, 가빈자독서(地瘦栽松柏, 家貧子讀書)"의 전통이 있어, 격렬한 인지 모순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과거를 통해 운명을 바꾸기를 갈망하게 했고, 송 이래로 과거 풍조가 특히 성했으며, 명 중기 사회가 안정될 시기에 이르러 지방 경제의 발전이 사인 독서에 양호한 경제 지원과 족학 전통을 제공하자, 보사(蒲士)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과거에 참여하여 "팔민교지, 즉보어타군 위특성; 차군속읍수삼, 기소진솔다보사, 시우읍적군야(八閩較之, 則莆於他郡爲特盛; 且郡屬邑雖三, 其所進率多蒲士, 是又邑敵郡也)"의 성적을 거두었다. 과거 공명 지리 분포의 각도에서 심시하면, 명대 흥화부 보전현은 거인 수량(1596명)이든 진사 수량(518명)이든 모두 전성 1위를 차지했고, 보전현의 진사 수량은 심지어 전국 1위였다. 이는 분명히 임조은이 응시할 때 만난 직접적 압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날로 심각해지는 경쟁 압력을 모든 지방 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는 없었는데, 특히 임조은으로 대표되는 전통 사인 가정 출신의 사자들이 그러했다. 한편으로 명문 출신 사자들의 각자 지방에서의 지식 독점 지위는 여전했기에 절박한 경쟁 욕망을 산생시킬 수 없었고, 특히 보전의 과거 사업이 거의 흥화부 일부의 과거를 독점했기에 보전의 명문 자제들은 경쟁의 심각성을 자각하기 더욱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 예전에 좌절한 사인들이 방대한 낙제 집단을 형성했는데, 그들은 진급 도로가 막혀 부득이 다른 출로를 찾아야 했고, 지방을 기초로 하는 사적 교왕 네트워크를 건립하여 자신의 사회 지위를 유지하는데 의존했으며, 이러한 지방성 사적 교왕 네트워크도 새로운 세대 사자의 자아 인지에 몽폐 작용을 했다. 이러한 인지와 현실 존재의 과거 간극은 최종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방 중하층 사인들로 하여금 과거 실패 후에도 분발하지 못하고, 자아 존재에 대해 의심으로 가득 차고 전도 운명에 대해 막연함으로 가득 찬 환멸 정서와 개인 비극에 빠지게 했으며, 이러한 과거 비극은 명대에 왕왕 사대부 집단 집체의 종교화 사상 전향을 초래했는데, 불교든 도교든 심학이든 마찬가지였다. 임조은 본인이 바로 이러한 "사인 생존 곤경" 중에 처한 대표적 인물이며, 그 후의 사상 전향도 상술한 사인 집단 집체 사상 전향의 대추세에 부합한

다.

임조은 과거 경력의 최대 모순은 순수한 과거 현실과 과거 의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조은 및 외부의 그 과거 전도에 대한 주관적 정위와 그 실제 실패한 과거 현실 사이의 충돌에 있다. 『실록』과 『연보』에서 찾아보면, 외부가 시종 임조은에게 매우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임조은 유년 시절, 두 책 모두 그의 출생시 "상광축화, 이향습인(祥光燭火, 異香襲人)"이라 기재했는데, 이는 실제로 당시인들의 그 출생에 대한 희망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인의 문본 서술이 삼일교 종교화 요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반영한다. 임조은 사상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왕양명도 임조은 4세 때 그를 칭찬하여 "기후일복량, 과어선생원의(其後日福量, 過於先生遠矣)"라 했다. 다음으로 임조은 종학시 외부의 그에 대한 평가인데, 그가 16세에 『박사가언』을 찬술하자 "성오공복대기기재(省吾公復大奇其才)"했고, 18세에 "역시구우. 독학반공황, 열기시권, 평위 '견리지문(歷試俱優. 督學潘公潢, 閱其試卷, 評爲見理之文)'"이라 했으며, 24세에 "독학... 수발교주, 우명작의고제서... 초하심은선생, 상위인왈: '임자지문, 아조제일, 즉왕양명제배, 개불능급야(督學... 首拔敎主, 又命作擬古諸書... 楚何心隱先生, 嘗謂人曰: 林子之文, 我朝第一, 卽王陽明諸輩, 皆不能及也)'"라 했다. 이로 보아 임조은이 있던 본지 교왕 네트워크는 임조은 본인의 재간과 전도에 대해 고도의 평가와 기대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임조은 본인도 이러한 평가를 인정하는 심리가 있었는데, "가정 19년 추, 교주유구리호, 몽진인위지왈: '기린기사업, 당대기문장(嘉靖十九年秋, 敎主遊九鯉湖, 夢真人謂之曰: 麒麟其事業, 當代其文章)'"이라 했으니, 이것이 어찌 그 역시 자시가 매우 높았음을 반영하지 않겠는가?

임조은 개인의 실제 재능이 시인의 평가에 필적할 수 있었는지는 아마도 정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실록』에 임조은이 "입소학, 매독서수행, 수독수십편방능인식(入小學, 每讀書數行, 須讀數十遍方能認識)"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연보』에는 없으니, 아마도 『실록』이 임조은이 개오를 얻어 신화된 형상을 선염하기 위해 편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임조은 조년에 그리 많은 천부를 체현하지 못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임조은이 가정 25년 향시에 이름이 없자 선즉 과거 도로를 포기했음을 보면, 『연보』에 "내복기거유자지학(乃復棄去儒者之學)"이라 했고, 『실록』에 "수번연기거자업(遂翻然棄舉子業)"이라 했는데, 이런 의문

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임조은이 만약 자신의 종거 전도에 대해 의심을 산생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과결하게, 혹은 신속하게 인생 종업의 목표를 전변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임조은이 진정 단지 고장 실오 때문이었고, 진정 시인이 말한 대로 세상에 재능을 품고 있었다면, 아마 중신 고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조은이 과거를 포기한 동기가 도대체 자감내허(自感內虛)하여 다른 길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점차 불도에 경도되어 일찍이 사의 흥취를 잃은 것인지는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데, 결국 최후 일차 응시 전에 임조은은 이미 빈번하게 심학과 이씨를 향유하는 경향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조은은 당시 아마도 사로 도로와 기명학도의 사상 선택 사이에서 여전히 유예부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그가 최후 일차 과거에 후망을 품고, 심지어 임행 전에 "족인대교주기몽어구리호(族人代敎主祈夢於九鯉湖)"하게 한 원인일 수도 있고, 바로 최후 일차의 희망이 오유(烏有)로 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의 반복 응시 낙제로 인한 미망절망을 더하여, 그로 하여금 이번에 명락손산 후 사상이 부득불 어떤 전변을 산생하게 했다.

가정 30년 창교창도 이전에 임조은의 과거 도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가정 29년에 누군가 "권교주복사거업(勸敎主復事舉業)"했으나 임조은은 회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30년 후 임조은의 자신의 종전 도로에 대한 실망은 노유불유(露遺不遺)하게 현로되었는데, 그가 가정 31년에 상사명적을 사거할 것을 요구했을 때 "분청금이귀(焚靑衿而歸)"했고, 다음해 주형이 작문으로 소집한 것을 사퇴하며 자술하기를 "조은불능문, 즉능문, 불과일소기이(兆恩不能文, 卽能文, 不過一小技耳)"라 했으니, 그 중의 신산의랭을 일반(一斑) 볼 수 있다. 특히 동족 친척이 과거에서 계속 성공한 것, 예를 들어 숙부 임만조가 가정 17년에 진사가 되고, 친형 임조금이 가정 29년에 진사가 된 것은 명문망족 출신의 임조은으로 하여금 더욱 낙차와 초려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임조은이 걸은 것은 여전히 전통 사인의 "불종사즉은(不從仕則隱)"의 노로였고, 그 사상 운양은 아직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2.3 유학에서 삼교로: 사상 통합의 경로 탐색

임조은의 과거 경력이 체현한 것은 지방 사교 평가 체계와 국가 과거 평가 체계의

불필배(不匹配)였으나, 임조은이 신속하게 국가 과거 평가 체계에서 탈리하여 "종교 교주"로 전변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가 과거 도로상에서 접촉한 특수한 학술 환경과 종교 분위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한 학술 환경과 종교 분위기가 임조은에게 영향을 미친 경로는, 하나는 그의 가정, 친족을 통한 영향이고, 둘은 임조은 조년 유학시 건립한 사교 네트워크를 차용한 것인데, 후자가 당시 사회의 사상 추향을 가장 잘 창현할 수 있고, 임조은 조년에 과거 사업 이외에 개벽한 또 하나의 사상 천지이며, 더욱이 어느 정도 가정 30년 이후 임조은의 학술 단체 조직, 확전이 의장한 일대 기초로 연변되었다.

임조은이 접촉한 이러한 특수한 학술 환경과 종교 분위기는 실제로 당시 사인의 집체 관결과 공동 지취를 체현했고, 또한 만명 이사인위 중심의 사회 의식 도경을 전현했다. 임조은은 가정 30년 후 창설전도를 결정하기 전에 이하 사회 인물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교왕이 있었다:

[표1. 임조은 창교 전 사교 상황표(부분) - 표 내용 생략]

자료 출처: 노문휘: 『임자본행실록』, 노영방: 『임룡강연보휘편』. 별주: 임조은 조부 임부는 가정 11년(1532년)에 치사환향하여 보전 동암산에 "동산초사"를 설립하여 양명심학을 선양했는데, 이것이 당금 삼일교 조사 "동산조사"이다.

이로써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임조은 개인이 과거 낙제 이전에 이미 일찍이 심학과 도교에 대해 비교적 풍부한 이해와 비교적 농후한 흥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 25년 전, 임조은은 주로 심학 이념의 간접적 피동적 계몽을 받았고, 아마도 임조은으로 하여금 일부 심학의 기본 이론 틀을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25년 후, 임조은은 삼교에 대한 명현한 흥취를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가정 25년... 교주시언삼교이(嘉靖二十五年... 教主始言三教耳)"라 했고, 그는 주동적으로 삼교 사이를 출입했는데, "편고삼문, 자자시야. 수년간, 여치여취, 여전여광, 범략유도자, 첩배방지, 후폐지(遍叩三門, 自茲始也. 數年間, 如癡如醉, 如顛如狂, 凡略有道者, 輒拜訪之, 厚幣之)"라 하여, 그 중에서 정신적 출로를 얻기를 갈망했다. 임조은은 "성명지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가 방면의 내단을 주로 하는 관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양명심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임조은의 심학 계승은 "치양지"를 기계적으로 종교 수법에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심학 내재의 "삼교회통" 추세를 따라 더 나아간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심"을 최고 본체로 삼아 "아지심, 이여황제석가노자공자지심, 일이이의. 심일도일, 이교즉유삼. 비지류지수고수, 이초천지출어산하자일야(我之心, 以與黃帝釋迦老子孔子之心, 一而已矣. 心一道一, 而教則有三. 譬支流之水固殊, 而初泉之出於山下者一也)"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인"을 우주와 윤리의 공동 근원으로 승격시켜 "인=심"을 삼교회류의 관건 추축으로 삼고, 심지어 "즉단즉인" "심즉인야, 인즉성야"의 등치 관계를 제출하여, 이로써 "유위입본, 도위입문, 석위극즉"의 수행 구조를 확립했다. 이러한 "이심합삼"의 이로는 양명 만기의 삼교 기능에 대한 정합 상상을 승접했을 뿐만 아니라(불, 도에 대한 간단한 배척이 아닌), 임조은이 종교화 방향에서 심학을 "격진화"한 표지이기도 하다. 그와 강우왕문 나홍선의 교왕, 태주학과 하심은과의 호동, 그리고 보전 도사 탁만춘처에서 내단 계발을 받은 것 등은 모두 이 경로의 가견 절점이다. 그가 가정 31년 나홍선에게 보낸 신에서 술한 바와 같이: "조은전년역증재유문중, 이학유자지도, 이부득기요야; 우증재현문중, 이학도가지도, 이부득기종야. 금개기거지, 이행문삼교합일지지(兆恩前年亦曾在儒門中, 以學儒者之道, 而不得其要也; 又曾在玄門中, 以學道家之道, 而不得其宗也. 今皆棄去之, 而幸聞三教合一之旨)"라 했다. 동시에 임조은은 단지 이론 건구에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과 제도화 실천(예: 구서심법, 과의)을 통해 의리를 가조작적인 종교 공부와 의식 실천으로 전화시켜, "삼교합일"이 단지 사상 층면에 정류하지 않고 사신과 신중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종교 생활로 낙실되게 했다.

명대 관장에는 학술 절차로 정치 사교를 증진하는 풍기가 상재했고, 이 영향 하에 명대 사자도 학술 교류를 상당히 숭상했으며, 보통 사인은 신흥 학술에 매우 큰 관주를 폈었다. 복건 지역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사대부강학론도지성, 비어송남도시(士大夫講學論道之盛, 比於宋南渡時)"의 발전이 있었다. 정치에 그 분야가 있듯이 사대부강학논도도 왕왕 각자의 유파 주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술 풍기에 중국 사인의 유학 전통을 더하면 민간의 구역성 학술 분야를 산생한다. "신학"은 당시 사인의 이해에서 과거 도로와 충돌하지 않았고, 사인 학술 생활에 대한 일종의 필요한 보충이었다.

가정 연간에 양명심학은 "기교대행... 가륵이후, 독신정주, 불천이설자, 무복기인(其敎大行... 嘉隆而後, 篤信程朱, 不遷異說者, 無復幾人)"하여, 당시 강서, 절강, 호남, 복건 등성에서 파광(頗廣) 전파되었는데, 이는 또한 임조은의 활동 범위와 정호 부합한다. 임조은은 바로 당시 사인이 학술 신품을 숭상하고 유학구도를 숭상하는 자의 전형이었다. 동시에 황제의 개인 기호로 인해 민간 승도 풍조도 파성했고, 도교는 또한 당시 유학의 주류인 심학과 이론상 상대적으로 겸용되었기에, 본래 도교 분위기가 농후한 복건에서 도교는 전소미유하게 상유(尙儒) 보통 사인의 일상생활에 진입했다. 송명이학은 그 일개시부터 사인 수신의 정신 측면에 관주했고, 명대에 이르러 사인이 도학에 친근한 것도 이미 경상 현상이었다.

이로 보건대, 가정 30년 전 임조은이 학술 지취와 학술 실천상 실제로 만명 보통 상학 사인의 전형이었고, 그 사상 요소도 당시 학술 사조의 창현이었으며, 양명심학과 불도 관념은 그 사상 형성 단계에서 이미 그 사상의 일대 중요 기초를 구성했다.

총괄하면, 임조은의 조년 생애는 만명 전통 사신 군체의 전형적 축영이라 할 만하다: 그 사상 저색은 가족 전통과 과거 경력의 쌍중 소조에 근식했고, 유학과 사교는 그에게 기정 틀을 돌파할 기능을 제공했다. 가족 전승의 유학 근기와 심학 전향은 그에게 "위선향리"의 도덕 자각을 부여했고, 과거 제도의 계통성 옹색은 그로 하여금 "학이우즉사" 이상의 파멸을 직면하게 강박했다. 이러한 구조성 압력과 개체 곤경의 우합은 임조은을 삼교 사상의 정합으로 구동시켰는데, 이는 만명 학술 사조 교양의 필연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신 계층이 신분 위기에 응대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수백금이여빈인"의 유생 선거에서 "분청금이귀"의 결절 자태까지, 그 사상 궤적은 하나의 심각한 역사 논리를 제시한다: 과거 제도가 사인의 가치 승낙을 태현할 수 없을 때, 종교 실천은 사회 역할과 정신 귀속을 재구성하는 파국지경이 된다. 언급할 만한 것은, 임조은의 처경이 만명에만 독유한 것은 아니다. 원말명초 시기에도 역시 사인이 사로가 수조되어 다른 출로를 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기는 출처 진퇴 사이를 여러 차례 경력한 후 최종적으로 문으로 『울리자』를 저술하여 지절을 기탁했고, 송렴은 환도 기복 중에 경학 저술로 전향하여 문사로 입신했으며, 주단계는 "원유입의"를 선택하여 도덕 수양을 의학 실천에 융입시켜 명대 남방 의학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개안은 제도 압력과 신분 초려 하에서 사인이 왕왕 사로

이외의 대체성 도로를 추구했음을 현시한다. 임조은이 삼일교를 창립한 것은 바로 이 다원 추택 격국 하의 특수 표달로서, 사신 군체가 역사 곤경 중에서 종교 실천을 차용하여 사회 역할을 재구성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반영한다.

2.4 실천에서 이론으로: 삼일교 조직화의 쌍중 동력

임조은이 창립한 삼일교는 그 조직화 과정이 선명한 "실천 축적-이론 완성"의 쌍중 경로를 정현한다. 가정 연간의 항왜, 진재 활동은 교파에 지방성 기초를 전정했고, 가정에서 만력 연간까지 교의의 지속 완성과 계통화는 초지역, 초계층 전파에 이론 공구를 제공했다. 이 쌍중 동력은 만명 사신이 과거 위기에 응대한 책략성 선택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종교가 실천과 사상 호동 중의 발전 논리를 제시했다.

항왜, 진재 활동은 임조은에게 매우 높은 지방 성망을 획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초보적 사회 자본을 구건하게 했다. 가정 34년(1555년)에서 43년(1564년)까지 복건 연해 왜환이 빈발했고, 보전 지역이 우심했다. 임조은은 문인을 조직하여 대규모 진제, 수시 활동을 전개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가정 39년... 시왜구창궐성 외, 피구자산처성중급사관, 부지기수, 술거지이침, 우가기아, 교주매구전미급초석이 시지, 빈병함덕언(嘉靖三十九年... 時倭寇猖獗城外, 避寇者散處城中及寺觀, 不知其數, 率踞地而寢, 又加飢餓, 教主每具錢米及草席以施之, 貧病咸德焉)"이라 했다. 또 기재하기를: "가정 41년 임술, 춘정월, 폐청북경승무문, 장주승정원, 평해승정원등십여인, 재보성내외수시, 화이장지, 문이전지, 약유오천여신. 우명승운장등, 범팔역월, 약수만유여신(嘉靖四十一年壬戌, 春正月, 幣請北京僧無聞, 漳州僧靜圓, 平海僧淨圓等十餘人, 在莆城內外收屍, 火而瘞之, 文以奠之, 約有五千餘身. 又命僧雲章等, 凡八易月, 約收萬有餘身)"이라 했다. 이외에도 임조은은 관부를 협조하여 왜구를 항격했는데, 『실록』에 기재하기를: "교주수모제신신여광병계약, 능퇴로즉여천금. 광병혼연추하성, 도하분격, 왜이해퇴, 수색사(教主遂謀諸縉紳與廣兵契約, 能退虜則予千金. 廣兵欣然縋下城, 渡河奮擊, 倭夷駭退, 遂索謝)"라 했다.

이류 행동은 일정 정도 지방 위기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임조은과 그 학설로 하여금 민간 신임과 관원 묵허를 획득하게 했다. 왜구가 물러간 후, 지방 관원들이

분분히 임조은을 표창, 배방했는데, "안원번공, 군수륙공구행장려, 군수동공, 이수문공, 통판래공, 추관손공, 대윤하공, 함조기려(按院樊公, 郡守陸公俱行獎勵, 郡守董公, 二守文公, 通判來公, 推官孫公, 大尹賀公, 咸造其廬)"라 했다. 적지 않은 관원도 그 의행으로 인해 거천했는데, 예를 들어 후에 호부상서에 이른 경정향, 응천순무에 이른 임윤 등이 "독학초동경공정향, 소천교주... 임공윤역시유천발지의, 제이아조무은일지과야(督學楚峒耿公定向, 疏薦教主... 林公潤亦時有薦拔之意, 第以我朝無隱逸之科也)"라 했다. 어느 정도 임조은과 그 문인은 다른 일종의 방식으로 지방 권력 네트워크의 건구에 참여했고, 삼일교 후속의 발전에 일정한 기초를 타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임조은은 부단히 그 삼교합일 이론을 완선하고, 신앙과 수행에 대해 규범했다. 삼교합일 이론의 완성은 만력 22년(1594년) 『임자삼교정종통론』 36책의 편정 완성인데, 『통론』은 임조은이 논저한 각서를 포함하여 삼교합일 이론, 삼일교의 교리교의 등에 대해 비상 계통적인 총결과 천석을 했다. 이외에도 신앙 실천 방면에서 임조은은 만력 8년에 『구서적언』을 저술하여 삼일교가 제창한 "구서심법"에 대해 비교적 계통적인 천술을 진행했고, 특별히 개편에서 문인에게 요구를 제출했는데 "여이삼교위교의, 이제생초래수업자, 필선령기소천시언, 이여역시복신지, 이치엄언; 이이소소진, 실개생인지계행, 천지지상경, 차교지소이입본야(餘以三教爲教矣, 而諸生初來受業者, 必先令其疏天矢言, 而餘亦時復申之, 以致嚴焉; 而二疏所陳, 悉皆生人之戒行, 天地之常經, 此教之所以立本也)"라 했다. 이 거조는 신앙의 문감을 강하시켰고, "구서심법"이 치병 공효를 구유한다고 선칭함으로써 보통 농민, 상인 등 군체의 가입을 극대하게 흡인했다.

또한 대량 삼교사의 흥건은 삼일교의 전파 네트워크의 구건과 발전을 더욱 추동했다. 만력 12년(1584년), 문인 황방 등이 출선하여 임조은을 제사하는 사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청 강희 11년(1672년)에 이르러 불도 일개 세기의 시간 안에 동사 『임자문헌실록』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가고 성명의 건사 문인이 이미 49인에 달했고, 삼교사는 보전에서 점차 복주, 구주, 송강, 남경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건사에 참여한 인원 구성도 파워 광범했는데, 사신, 관원을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함께 했으니, 이는 삼일교가 당시 사회에서의 광범 전파와 심원 영향을 충분히 전현했다.

[그림1. 삼일교 조직화의 쌍중 동력 시의도 - 그림 생략]

그림1에서 표시한 "쌍중 동력"은 즉 임조은이 개인 종교 실천(심학 전향, 심법각병, 진재강화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점보 삼일교의 제도화를 추동한 것을 지칭한다. 동시에 그 문인과 사신 네트워크의 참여는 또한 사회 층면에서 반과래 교단의 조직 확장을 강화했다. 이 내외 양단이 호위 동력이 되어 삼일교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관건 기제를 구성했다. 따라서 삼일교의 "실천-이론" 쌍중 동력은 본질상 만명 사신 계층이 과거 실효 후 종교 실천을 통해 사회 역할을 재구성한 축영이다. 그 초기 진재, 항왜 활동은 지방 합법성을 전정했고, 후기 이론 창제는 조직 확장의 가지속성 문제를 해결했다. 이 경로는 민간 종교의 흥기가 단지 신앙 수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특정 역사 정경 하에서 사회 자원과 사상 자원이 호동한 산물임을 표명한다.

더 나아가 말하면, 이러한 과거 웅색으로 인해 종교 실천으로 향하는 전향은 실제로 일종의 "자본 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상징 자본은 총시 부단히 기타자본과 연계하며 사용 방법에 따라 증감한다... 상징 자본은 따라서 '경제'와 물리 자본이 전화되고 은장된 형식이 되었는데, 오직 이런 사실을 은장해야만 상징 자본이 자신의 효과를 산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말 대량의 누차 낙제한 생원과 중하층 사신은 과거 성공이 가져다주는 정치와 경제 자본이 결핍했기에, 오직 사관 기부, 의거 참여, 서적 편찬 등의 방식을 통해 유한한 물질 자원을 지방 사회가 인가할 수 있는 상징적 자본으로 전화하여 그들의 사회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임조은과 그 문인들은 진재, 수시, 전사와 강학을 통해 유한한 경제 자원을 상징 자본으로 전화하여 지방 사회의 그들 도덕 성망에 대한 승인을 중신 획득했다. 제도 실령과 사로 수조의 정경에서 종교 실천은 사신 계층이 상징 자본을 보충하는 도경이 되었고, 임조은이 삼일교를 창립한 것은 바로 "자본 전화-상징 축적" 논리의 역사적 전현이다.

3. 사신 사회와 문인 네트워크: 삼일교 계층과 지역의 확장

본문은 명대 중후기 사신 계층이 어떻게 종교 실천을 통해 그들의 사회 역할을 재구

성했는지라는 핵심 명제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삼일교 창시인 임조은의 개인 경력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비록 개체 능동성을 규견할 수는 있으나 사신 군체가 과거 위기에 응대한 집체 책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삼일교의 역사 의의를 정체성 정현하려면 "창교자 중심론"의 국한을 돌파하고, 전이 그것이 일종의 제도화된 종교 조직으로서 승재한 사회 기능을 고찰해야 한다. 이는 연구 중심을 사상사 층면의 교의 분석에서 사회사 유도의 군체 고찰로 전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 신도의 계층 구성, 지역 분포, 전파 경로 등을 포함하여. 오직 이러한 구조성 분석을 통해야만 삼일교가 어떻게 과거 제도가 응색해지는 배경 하에서 사신 계층이 지방 권위를 유계하는 "별류" 공구가 되었는지를 리청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임조은의 종교 실천은 고립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분 지방 사신의 인동과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척계광 『지지당집』에 "임조은상도여이장생지술(林兆恩常導予以長生之術)"이라 기재되어 있고, 『실록』에 독학 경정향이 일찍이 임조은을 소천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문인 임윤은 후에 응천순무를 지냈으니, 모두 사신 군체의 그 종교 사업에 대한 승인을 표명한다. 이외에도 군수 동사형, 정수 진화산, 안원 변헌과 등 지방 장관도 누차 조방 청교하고 제편상찬했다. 심지어 도헌 유훈 같은 경우는 병으로 인해 구치하여 신도가 되어 삼일교를 사신 네트워크에 더욱 감입시켰다. 이러한 개안은 삼일교의 제도화가 창교자와 식식상관할 뿐만 아니라 사신 계층 집체 참여, 호동이 추동한 결과임을 현시한다.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일교의 문인 군체는 본신이 바로 변화, 발전하는 역사 실재이다. 가정 30년(1551년), 임조은이 정식으로 읍인 황주를 첫 번째 문인으로 수납했고, 이로부터 삼일교의 문인 신중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삼일교 최초의 문인은 가정 30년(1551년)에 집중 출현했고, 두 번째로 문인 수록 기재가 출현한 것은 10년 이후여야 했다. 따라서 가정 30년의 문인은 삼일교 문인 신중의 최초 형태로 볼 수 있고, 가정 30년(1551년)에서 40년(1561년)까지가 바로 문인 신중 발전의 제1단계이다. 이들 문인은 기본적으로 두 류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제 친속이고 둘은 제생읍인이다. 이 시기 삼일교의 전파는 오직 임조은 개인의 숙인 관계에만 국한되었다. 가정 40년(1561년)에서 가정 45년(1566년)까지, 문인 신중의 군체는 임조은 친족 숙인의 관계 이외의 본지 문화 계층으로 확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는 이전보다 더 방대한 제생읍인도 있었고 승인도사도 있어, 이 시기에 임조은의 학설 성망이 날로 성해지면서 더 많은 보전 본지 독서인이 명을 모시고 종교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때의 문인과 교주의 관계는 사생 관계에 더 접근했다. 가정 45년(1566년)에서 만력 12년(1584년)까지, 문인 군체는 독서인 이외의 지방 사회 각 계층의 성분을 흡납하기 시작했는데, 농민, 수공업자와 상인, 어민 등을 포함했고, 문인 래원은 보전 일지에서 복건 성역으로 확전되었는데, 이는 이때 임조은이 운유각지 강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력 12년(1584년) 이후, 문인 군체는 세 가지 특징을 정현했다: 첫째는 임조은 본인이 더 이상 외출 전교하지 않고 전이 재가 저술함에 따라, 문인의 산생은 주로 기유 문인의 전교를 통했지 임조은 본인을 통하지 않았고, 이 시기 문인과 임조은의 관계는 사생 관계에서 "교주"와 "신도"의 관계로 전화되었다. 둘째는 문인 래원이 복건 일성에서 외성으로 확전되어 복건을 중심으로 동남 각성 내지 경사까지 연급하는 전파 격국을 형성했고, 각지 창교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도 단체를 형성했으며, 재조 관원이 입문하는 정황이 출현했다. 셋째는 문인 행위가 임자에게 종학하고 임자를 종행하는 외에 대규모로 삼교사당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가정 30년(1551년) 문도 수록에 관한 기재에 대해, 『연보』는 황주 일인만을 문인례로 기록했고, 『실록』은 황주를 문인으로 기록한 사후에 부왈: "이황대본... 등, 상계수업의(而黃大本... 等, 相繼受業矣)"라 했다. 이로 보아 가정 30년(1551년)에서 가정 40년(1561년)간 문인 수록에 관한 역사 서술은 비교적 큰 모호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실록』에 기재된 황주 외 문인어가 부연한 바가 있으나 어언부상하고 『연보』와 호증하기 어려워 이들 문인의 수록에 일정한 가의지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실록』이 술한 "등"은 이들만 수록을 득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상계수업"은 이들 문인의 수록이 매우 가능하게 가정 30년(1551년) 일년 중에 있지 않고 문본 서술의 편리 때문에 가정 30년(1551년)에서 40년간(1561년)의 문인을 모두 일처에 열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필경 이처럼 일년에 집중되고 후 10년간 무록인 정황이 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일교연구』가 이들 문인 수록 시간을 명확히 가정 30년으로 썼다고 칭한 것은 아마 부실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제문헌이 이 시기 문인 정황에 대해 기재한 지언편어도 확실히 이

시기 문인의 기본 형상을 구획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말하면, 황주가 문인이 된 일사에 관한 문본 서술이 이 시기 문인 정황에 일정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황주소여교주우선, 매상찰언동간, 심열성복, 내집지장궤, 원위제자이수교. 교주전기지의간절, 시이심법어지(黃州素與教主友善, 每詳察言動間, 心悅誠服, 乃執贊長跪, 願爲弟子而受教. 教主見其志意懇切, 始以心法語之)"라 했다. 『임자행실』은 임조은의 문인 수록에 대한 근신 태도를 강조했다: "황주... 장궤자십수차, 선생견불수지. 후, 찰기지과전, 시이공문심법어지. 자차, 학문정근, 조수불구, 선생내명위교수사(黃州... 長跪者十數次, 先生堅不受之. 後, 察其志果專, 始以孔門心法語之. 自此, 學問精勤, 操守不苟, 先生乃命爲教授師)"라 했다. 황주는 임조은의 동향읍인이고, 이인이 래왕밀절했으며, 황주는 임조은의 언행에 대해 직접적 이해와 숙실이 있었고, 이 기초상에서 이인의 사도 관계는 실제상 이인 숙인 관계의 확전이였다. 그리고 임조은이 최초 이종 관계를 사도 관계로 확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신 태도가 존재했는데, 반드시 황주의 지가 찰실되게 하고 황주의 학이 정근하게 해야만 문인으로 수납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임조은이 자신의 학이 성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아직 충분히 견정하지 못했고 당시의 생원 신분에도 애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에 이인 숙인 관계에 대한 고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불수"에서 "입문"까지 경력한 복잡한 과정은 이인 사상상의 교류와 상지가 더욱 심각해야만 수도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정한 교제 성분이 필요했다: 오직 동향읍인의 숙인 관계 상에 건립해야만 이종 경로를 경유하여 수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종 숙인 관계는 임조은의 장기적 학생 생활 배경을 감안하고 이인이 학문으로 상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바로 임조은이 이전 과거 수업시 결교한 동학 관계라고 인위할 수 있다. 이로부터 추지하면 가정 30년(1551년)에 기재된 황대본 등인도 임조은과 피차간에 학습상과 생활상의 밀절한 교왕이 있었다. 이들 중에 별도로 상세한 기재가 있는 자로는 동사에 기재된: "황대본, 천남인. 계축추, 동민중제생종임자유, 내각기기사문, 공위일질. 간유불달자, 청임자발명이필삭지. 집성, 이임자지성씨표기명, 재어청원동지허백실. 시가정갑인춘지원일야(黃大本, 泉南人. 癸丑秋, 同閩中諸生從林子遊, 乃各紀其所聞, 共爲一帙. 間有不達者, 請林子發明而筆削之. 集成, 以林子之姓氏標其名, 梓於清源洞之虛白室. 時嘉靖甲寅春之元日也)"라 했다. 여기 기재된 것은 입문 후의 시

간이지만, 동민중제생종임자유라는 것도 황대본과 임조은의 "제생"에 관한 특수 관계를 간접 좌증할 수 있다.

황주 일례에 근거하여 이 시기 문인 신도의 기초가 동학 성질의 숙인 관계라고 인위하지만, 이 시기 문인 신도의 숙인 관계 기초는 단지 동학 성질만이 아니라 친족 성질도 있었다. 이 시기 임조은의 친속 형제가 문인이 된 정황은: 가정 30년(1551년)에 『실록』은 임조거(조은 계제) 일인만 기재했다. 『연보』는 임조거, 임조고, 임조경, 임조치 사인이 있다고 칭했는데, 모두 임조은의 제제였다.

이로써 득지하는 것은, 이 시기 임조은의 친족이 문인이 된 것은 주로 그 형제 평배 인물이었는데, 이는 분명히 평배간의 사회 거리가 족내에서 가장 작고 또한 가장 일상성과 학습성 교류를 산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상술한 제생읍인과 마찬가지로 임조은이 최초 그 평배 형제를 문인으로 수납한 것도 분명히 동일한 정황인데, 즉 포괄하되 생원 생활 배경에 한정되지 않는 숙인 관계의 기초 위에 건립된 것이다. 사실상 삼일교 문인 중에는 상당 부분이 임조은의 친족 중에서 래자했는데, 평배로부터 확산하기 시작하여 그 장배에서 후배까지 모두 문인이 있어, 임조은 개인 사상의 조기 전파가 매우 큰 일부분 그 임씨 가족의 가족 네트워크에 기어했음을 설명한다.

총괄하면, 임조은 문인 군체의 최초 형태는 제생읍인의 동학 관계와 평배 형제의 친족 관계에 기어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단계 문인 군체가 공동 정현한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사자 독서인을 핵심 신분으로 했고, 둘째 임조은과 상당한 숙인 관계가 존재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임조은이 이들 문인의 과거 사업을 대대할 때 반대 태도를 지닐 수 없었다. 이들 문도가 임자를 종학한 것은 내 "거업상종"이었고, 임조은도 "사자, 능지수공문심법, 능시습거자업이양불상방애자, 시오제자야(士者, 能持受孔門心法, 能時習舉子業而兩不相妨礙者, 是吾弟子也)"라고 인위했다. 가정 40년에서 가정 45년간(1561-1566년)의 문인 구조도 기본상 이전의 문인 구조를 연습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 40년(1561년)부터 기재가 있는 문인이 명현히 증다했고, 성명이 있는 몇 명의 승인도사가 출현했는데, 이는 적어도 가정 40년이 주목할 만한 시간 절점임을 설명할 수 있다.

가정 30년(1551년)시 임조은의 사교 네트워크는 그 과거와 가족이 형성한 개인 관계에 지어했다. 임조은이 이전에 행한 것은 과거 종업 외에 개인 유학에 불과했고,

지방상 비교적 광범한 명성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임조은이 가정 31년(1552년)에 생원 학적을 사퇴한 일사 후부터 임조은은 사실상 이미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사인 학술 사회를 탈리하고 포의 신분으로 지방 민간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왜환, 온역의 일이 빈번했고, 임조은은 진민구재의 지방 치리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지방상에서 매우 큰 영향을 산생하고 매우 큰 명망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의 학술도 그 개인 숙인 관계 이외의 동향읍인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내지어 가정 40년(1561년)시 임조은은 이미 상당한 사회 영향과 학술 명망을 축적했기에, 더 많은 제생읍인이 임자 본인의 개인 관계 외에 삼일교 문인 군체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임조은의 학술 명망이 부단히 축적되면서 그의 삼교 학술에 대한 신심도 일익 증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임조은의 사회 영향이 부단히 축적되면서 그도 점점 일반 사인 교왕권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되어 문인 수록의 범위에 대해 확장 의원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양방면의 작용 하에 임조은이 문도를 초수할 때의 근신 태도가 축보 와해되었고, 이종 내재의 확장성은 삼교 문인 군체로 하여금 계층과 지역 두 유도에서 확전을 발생하게 했는데, 임조은이 아직 빈번한 외출 활동을 하지 않기 전에는 더 많이 계층 유도의 확전으로 표현되었으니, 즉 임조은 친족 숙인의 관계를 돌파하여 보선 지구 본지 문화 계층의 대권자로 확전했다. 이번 확전은 실제로 정확히 가정 40년을 기점으로 할 수 없는데, 『실록』의 가정 40년 문인에 관한 기재가 "명황사흠, 임조거, 오삼악등칠십여인(命黃士欽, 林兆居, 吳三樂等七十餘人)" 종수시무라 했는데, 이 기재에 따르면 칠십여중 문인이 모두 일년에 출하여 선위 명령을 받기는 어려우니, 가정 40년(1561년) 전에도 문인 수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사료에 기재된 승도인사도 모두 엄격한 의미의 임씨 문인은 아닌데, 대개 이류로 분하면, 일부분은 임조은이 폐청하여 수시하러 온 자이고, 다른 일부분은 임조은이 명하여 수시한 자이다. 전자는 논할 필요가 없고, 후자가 모두 임씨 문인인지도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단빙 명령 수시로는 완전히 긍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승도 지류가 삼교 문인으로 입할 수 있으면서 개칭하지 않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필자가 인위하기로는, 이 시기 삼일교가 아직 종교화 과정에 처해 있었고, "명령 수시"가 문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삼교 문인

군체가 왜환 온역이 폭발한 이 시기에 주로 임자 동학 외의 일부분 본지 문화 계층을 흡수했는데, 이들은 원래 일정한 지식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고 삼교에 접촉이 있었으며, 임씨 명망이 더욱 현저해지면서 삼교 문인으로 전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교 문인의 또 다른 대확전, 즉 지역의 확전은 가정 43년에서 45년간(1564년-1566년)에 이르러서야 현현되었는데, 그 선택은 임조은 본인 전교 활동 범위의 확전이다. 임조은 전교 활동의 이 전변에 관해 『삼일교연구』와 『임조은여삼일교』의 기술이 약간 다른데, 전자는 "제일개계단시종가정30년지가정43년... 제이개시기종가정44년개시, 임조은선포불재이교수제생작위중임, 이개시운유천하, 수처전교(第一個階段是從嘉靖三十年至嘉靖四十三年... 第二個時期從嘉靖四十四年開始, 林兆恩宣布不再以教授諸生作爲重任, 而開始雲遊天下, 隨處傳教)"라 인위했고, 후자는 "여가정45년이전주요재보전, 선유일대활동상비, 릉경이후기활동범위대대확대로(與嘉靖四十五年以前主要在莆田, 仙遊一帶活動相比, 隆慶以後其活動範圍大大擴大了)"라 인위했으니, 양자의 분기는 전자가 44년을 전절점으로 했고 후자가 45년을 전절점으로 했다는 데 있다. 필자가 인위하기로는, 양자 이 부분의 서술이 모두 『본행실록』에 본했는데, 『실록』을 검하면 임조은이 선포하여 교수제생을 중임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가정 45년(1566년) 임조은이 복주에 간 일사만 기재했으며, 가정 44년(1565년)에는 외출 기록이 없으니, 『임조은여삼일교』의 설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이렇다 해도 가정 45년(1566년)도 절연분명한 계한은 아닌데, 사실상 임조은이 이전에 복주 등지에서 유람한 경력이 있고 그 간에 다소 전교가 있었으며, 가정 45년(1566년) 조도 명확히 "외출 전교"의 의를 표달하지 않았으니, 가정 45년(1566년)의 계한은 임조은 전교 활동의 이 전변 배후의 점진성과 장시성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 어쨌든 임조은 본인의 전교 활동 범위는 확실히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언급하여 임조은 외출 소부 지구와 대응 시간에 대한 고찰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임조은 외출 전교표 - 표 내용 생략]

주: 본표는 주로 『임자삼교정종통론』 『임자본행실록』 『임자연보』 『임자행실』 사서

를 대비 정리한 것이다. 그 부분 기재에 출입이 존재하므로, 본표는 좌증이 비교적 많고 가신도가 강한 기재를 준으로 하고, 학자 논저 여마서사 『중국민간종교사』, 임국평 『임조은여삼일교』 및 상관 문헌을 참고하여 교차 대비했다.

비주 부분이 표시한 바와 같이, 본표격이 검색한 학술 활동과 전교 기록은 주로 『임자행실』 『임자연보』 및 『임자본행실록』 삼서의 대비 열독에서 출자했고, 역시 비주 부분이 표시한 바와 같이 삼서 기재에는 비교적 큰 기이가 존재한다. 그 중 『임자행실』이 미재하고 여서에 재한 곳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 미기록처에 대응하는 조목이 주로 묘술한 것은 임조은 본인의 저서 경력이니, 『행실』이 임조은 본인의 활동 궤적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그 저서입론의 기재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인위할 수 있다. 『행실』이 결루가 있으나 고례가 없는 정황과 상반되는 것은 『연보』와 『실록』에 고례가 출현하는 정황이 비교적 많고, 이서 기재에도 흑다흑소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재 상세 정도로 언하면 『실록』의 기재 세절이 가장 많고 상응하는 종교 색채도 비교적 많으며, 『연보』는 문본의 기록성에 더 경도되고 묘술성이 아니므로 일조지내에 왕왕 요요 몇 필에 불과하다.

어쨌든 삼서는 기재 기이의 정황 하에서도 여전히 공동으로 임조은 외출 창교 활동에 관한 입체 도경을 전시했다. 이 도경은 두 조 경로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 두 조 경로는 부동한 의미상에서 언한 것이다. 미관적 방면에서 강하면, 임조은은 각지 기유의 사묘를 핵심 기점으로 하여 사묘에서의 창도저술을 통해 지방상의 학술 영향을 산생하여, 각지에서 지방성 모도자와 문인 군체를 산생하고, 다시 이 부분 모도자를 통해 임조은의 개인 활동 구역과 창도 구역의 중합을 실현했다. 궤관적 방면에서 강하면, 복건 중북부는 임조은 성내 활동의 주요 구역이고 시종 그가 외성으로 창교하러 가는 중전지였으며, 임조은이 주요 활약한 외성 구역은 조기의 "복건-강서"에서 "복건-강남삼성"으로 전향했으니, 즉 전교 성제 경로가 서에서 동으로 편이한 것이 존재했는데, 이 편이는 삼일교 일후의 핵심 영향 범위가 주로 강소에서 복건의 동남 연해에 있고 더 내륙인 중남 구역이 아니게 했으나, 그 전교 성제 경로의 방향은 시종 남에서 북으로였으니, 이 역시 시종일관 그 교가 서남과 양광에서 대규모 영향이 출현하는 것을 관찰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이다.

실제상 전교 경로가 공간상의 종점인 금릉 전교는 삼교 전파사상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구비한다. 룡경 4년 임조은이 금릉으로 전교하러 간 원인은 "시인유이삼교위성, 규리어금릉자, 교주치지(時人有以三教爲聲, 規利於金陵者, 教主恥之)"였는데, 이는 삼교의 학설이 자신의 순결성을 유호하는 경향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대표하고, 어느 정도 종교로 전화하는 기초를 현현했다. 교주가 금릉에서 귀환한 후 선즉 "명여근재 금릉창교, 겸장서적(命餘芹在金陵倡教, 兼掌書籍)"했는데, 이번 전교는 교주가 학설 정통을 유호하는 실제 결심을 체현했을 뿐만 아니라 임조은이 주동적으로 문인을 임명하여 창교한 발단이기도 했다. 이 일련의 행동을 통해 임조은은 성공적으로 교내 조기의 이단 경향을 정돈하고 그 학설 문파 중의 권위 지위를 공고히 했다. 다른 한편으로 임조은이 금릉의 학교 전파를 이처럼 중시한 까닭도 남경이 명대 학술사상의 특수 지위를 창현했는데, 남방 실제의 정치, 학술 중심으로서 금릉의 학술 전파, 변이와 충당이 가장 활약적이었고, 만약 금릉 사인권 중에서 상당한 성망을 취득할 수 있다면 남방의 정통 학술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임조은이 비록 이미 관학 계통을 탈리했으나 그가 전통 사인으로서 현학에 치력하기를 갈망하는 관절은 미변했고, 그의 이종 관절도 명대 남방 사인의 일면 축영이다: 지방에서 금릉으로. 그리고 삼일교가 남직 일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삼교 학설도 순리성장하게 임조은이 활약할 수 없었던 북경에 전파되어 일부분 재경 관료, 궁정 성원 신분의 특수 신중을 산생했다.

실제상 룡경 4년(1570년) 금릉 문인 창교가 시작된 이래로 삼일교 학설은 점차 각지에서 당지 창교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파 격국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각지 창교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도 단체를 형성했다. 총적으로 말하면, 대치로 이하 오계로 귀납할 수 있다: 남직(남경, 송강, 휘주 등지), 형초, 민중(보전 등), 민북(북주 등), 절강(구주). 일개시에 지방성 문인 전교 행위는 아직 불태명확한 "창교어모지"였으나, 만력 15년(1587년) 황방이 건사한 후부터 지방 문인 전교 행위는 상당한 고정성을 구비하게 되었으니, 즉 지방 사당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고, 바로 이로부터 임조은의 임시성 전교 활동이 진정 지속성 창교 영향으로 전화되었다.

삼교 문인의 지역성 확전은 명대 사회 사상의 일종 동향을 전현했는데, 즉 명대 지방 사회에서 융현한 관학 경향과 사학 성질을 겸구한 학설 조류가 당시 사회에서 성행한 사대부 결사와 유학 행위를 통해 지방 정치학술 중심에 지속성 영향을 형성하

고 심지어 조정에 삼투한 이중 정황이다. 만약 이중 정황을 형상적으로 표출한다면 이렇게 총결할 수 있다: 적어도 명대에 복건 지방의 학설이 외확하려면 왕왕 당지에서 성내 각부로 전파한 다음 출성하고 왕왕 북으로 남직예를 중심으로 하는 정개강남 대부에 영향을 미친 후 최후에 다시 강을 건너 북으로 북경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로가 당시 남방의 지방 정치 층급과 거의 중첩되나, 지방의 학설에는 관학의 그중 반드시 이중 정치 층급에 부합해야 하는 필연 수요가 없었는데, 이 배후에 은장된 것은 명청 집권화 정세 하에서 민간 사회가 관방 통치 질서를 묵인하는 것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중 강화는 과거 제도 하에서 관학을 상당히 양모하는 사인 집단을 민간 사회와 관방 질서의 중개로 삼았기에 중고 사회와 유별한 사인 사회 특징을 형성했다. 엄요중 선생은 "전제집권적대일통사회정치체제적부단가강, 유유유수요경위일치적합유종교형태재내적사회의식형태(專制集權的大一統社會政治體制的不斷加強, 愈愈愈需要更爲一致的含有宗教形態在內的社會意識形態)"라고 인위했는데, 이는 당연히 삼교합일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강한 것이나, 이중 "종교의식형태"는 실제상 오직 임조은으로 대표되는 중개로서의 사인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면에서 술한 삼교 문인이 계층상의 확전과 재결합한다면, 삼교 조기 전파가 우연이 아니라 만명 전통 사인 사회 제다 정세가 도치한 필연임을 더욱 감수할 수 있다.

4. 결어

만명 사회의 구조적 모순, 우기 과거 제도의 응색과 사인 계층의 생존 위기는 임조은 급기 삼일교의 종교 실천을 최생했다. 본문이 탐토했던 안례에서 과거 실패는 사인 계층으로 하여금 종교 실천으로 전향하여 사회 역할을 재구성하게 강박했고, 삼일교의 흥기는 바로 이 군체가 제도 위기에 응대한 책략성 선택이었다. 임조은의 조년 경력 - 가족 심학 유염, 과거 루시불제, 유학삼교지간 - 은 그 창교에 사상 자원과 행동 동기를 제공했다. 그 조부 임부의 양명심학에 대한 접납은 전통 "학이사"의 경로 의뢰를 소해했고, 부친 임만인의 "희주인지급"의 시범은 삼일교의 도덕 실천 기초를 전정했다. 가정 연간의 항왜진재 활동은 지방 성망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사인, 승도를 핵심으로 하는 초기 문인 네트워크를 구건하여 삼일교를 "관-신-교"의 지방

네트워크에 감입시켰다.

만력 연간에 삼일교는 "구서심법"의 완선과 삼교합일 학설의 계통화를 통해 지방 사인 사단에서 초지역 종교 조직으로의 전형을 완성했다. 이 "실천 선행-이론 후성"의 쌍중 경로는 평민의 현세 이익에 대한 소구(여양생, 거병)에 회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신의 문화 권위도 유계했다. 문인 네트워크의 확산(북건→강남→경사)과 삼교사당의 흥건은 삼일교가 속인 관계에서 제도화 종교로 연변한 표지이다.

삼일교의 개안은 만명 사신의 종교 전향이 결코 단순한 신앙 선택이 아니라 제도 위기 하에서 사회 자본과 사상 자원이 호동한 결과임을 표명한다. 유학 도덕 이상을 종교화하고 지방 치리 의무를 신성화함으로써 사신 계층은 과거 이외에 신적 권력 장역을 개벽했다. 이종 "체제외 권위"는 전통 "사농공상" 질서에 대한 타협이자 신형 사회 관계에 대한 창조이기도 했다 - 그것은 사당을 절점으로 하고 문인을 뉴대로 하여 지방 사회의 권력 도보를 재구성했다. 이 현상은 하나의 더 광범한 역사 명제를 제시한다: 집권 체제와 과거 강화의 협봉 중에서 민간 종교가 어떻게 사신이 영향력을 유계하는 대체성 공구가 되었는가? 삼일교의 성공은 그 교의 정합에만 있지 않고 더욱이 그것이 만명 사회의 구조성 수구를 정준 포착하여 중국 전통 사회의 인성을 이해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민간 종교의 활력이 사회 모순에 대한 적응성 전화에 근식했고, 사신 계층이 시종 이 전화의 핵심 중개임을 제시한다.